



김종심 강진군 여성단체협의회장

'자원봉사자대회' 여성부 장관상

김종심 강진군 여성단체 협의회장(사진 오른쪽)이 지난 21일 영암 호텔 현대에서 열린 '제15회 전남 여성 자원봉사자 대회'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김 회장은 강진군 '이웃사랑 도우미 봉사단'과 연계한 지역사회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해 어려운 이웃들의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 왔다.

또한 국제결혼 이주여성 사랑의 강진나누기, 각종 대회 자원봉사 적극 지원, 결식아동 도시락 배달 및 아동복지시설 자원봉사 등 활발한 봉사활동 펼쳐왔다.

특히 노인공경 자원봉사 활동으로 매월 2~3회씩 노인복지시설 목욕봉사 실시와 경로식당 매주 1회 봉사로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김종심 회장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어려운 이웃들의 사랑과 희망의 등불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봉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회에서 강진군 적십자봉사회 김경애(43)씨와 신전면사무소 최미정(26)씨가 전남도지사 표창을 각각 수상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도교육청, 현옷 등 태안 방제작업용품 전달

전남도교육청(교육감 김장환)은 지난 24일, 원유 유출로 시름에 잠겨 있는 충남 태안 주민들과 아픔을 함께 나누기 위해 본청을 비롯한 산하기관 및 각급 학교에서 모은 면 소재의 현옷 양말 등 5톤 트럭 4대분의 방제작업용 물품을 수집해 충남 태안군에 전달했다.

동아병원, 기름유출 태안서 의료봉사활동

동아병원 동아사람모아 봉사단은 지난 20일 기름 유출로 피해를 입은 충남 태안군 구례포 해수욕장 일대에서 의료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소외·이주여성 인권보호 앞장서겠다"

창립 17주년 맞은 광주 여성의 전화 안 향 숙 대표

"차이는 있되, 차별은 없는 남녀평등한 사회를 위해 지역민들과 함께하겠습니다"

광주 여성의 전화 안향숙(50) 대표가 창립 17주년 새해를 맞아 밝힌 포부다.

광주 여성의 전화는 지난 1990년 12월 개소한 뒤, 성폭력·가정폭력과 관련한 상담 및 여성 인권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한 역할을 해왔다.

지금은 여성 인권 문제가 법으로 제도화되고 많은 단체가 생겨났지만, 개소 당시에는 유일무이한 여성인권단체였다.

안 대표는 "당시만 해도 폐쇄적인 사회 분위기로 남녀평등이라는 개념이 보편화되지 않아 여성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지난 1994년 광주여성의전화 상담원으로 활동을 시작한 이후 14년간 성교육전문 강사와 광주 가정폭력상담소장을 맡아 여성

인권을 위해 앞장서 왔다.

여성의 전화가 지난 17년이라는 시간 동안 호주제 등 불합리한 제도를 폐지하고 여성들의 목소리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많은 역할을 해왔지만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다.

14년간 성교육·가정폭력 상담**대다수 여성 위한 법 존재 몰라****남녀 차이는 있되, 차별 없어야**

여성의 전화가 여성 상위 시대를 주장하면서 이론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목소리가 나오는가 하면 여성들을 위한 법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이들도 많다는 게 안 대표의 설명이다.

안 대표는 "이번 2007년에도 가정폭력으로 인한 살인·중학생 성매매 사건 등이 발생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면서 "물론 사건 자체가 끔찍하고 안타깝지만 과거보다는 미래를 보면 서 이 사건들을 보고 발전을 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어 "사회적으로 얘기할 수 없었던 뿐이지 10여 년 전에도 똑같은 문제들이 있었다"며 "음지에 있던 여성 문제를 양지로 끌어내어 사회적으로 활발한 논의를 유도, 진정한 여성 인권 발전을 꾀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안 소장은 다가오는 새해에는 남성들을 상대로 남녀 상위가 아닌 함께 가는 동반자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지역민 속에서 함께하는 여성의 전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많은 사람이 아직도 여성의 전화는 소외된 여성들이나 가는 곳이라고 생각한다. 2008년에는 이런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하기 위해 건강한 가족을 위한 큰 틀의 프로그램을 마련하



고 이주여성들의 인권을 위해서도 첫걸음을 내딛겠습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시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우리가 키운 채소로 장애인 도와 뿐듯해요"

장애인 시설에 김장용 배추·무 기증 주월초 학생들**복지사 김서영씨 제안…30여명 주말농장서 땅방울**

"농작물을 키우고, 착한 일까지 하니까 정말 재미있어요."

최근 자신들이 직접 일군 야채를 장애인 복지시설에 기증한 광주 주월초 등학교 학생들의 하나같은 반응이다. 이들은 9월부터 광주시 북구 장등동의 밭에다 배추와 무를 심어 11월 말 인근 복지시설인 '즐거운 집'에 선물할 수 있었다. 12월 둘째 주 놀토에는 아이들이 직접 배추 100포기를 이용해 김장을 담근 뒤 '즐거운 집' 식구들에게 보내줬다.

이같은 아이디어를 낸 것은 지역사회 교육전문가 자격으로 지난 7월부터 주월초에서 근무 중인 사회복지사 김서영(여·39)씨. 김씨는 농협에서 분양 받은 10평 크기의 주말농장에서 놀토(노는 토요일·매월 둘째 월·넷째 주)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시작할 때는 15명이던 것이 지금은 30명 가까이로 늘었다.

염다빈(13·주월초 6년)양은 "배추

주말농장 프로그램에 참가한 아이들은 9월 말 배추와 무 씨를 뿌리고, 10월 말에는 김매는 작업과 애벌레 잡는 작업을 해냈다. 이후 11월 말 수확한 배추 50여포기와 무 70여포리를 남성 지체장애인 시설 '즐거운 집'에 선물할 수 있었다. 12월 둘째 주 놀토에는 아이들이 직접 배추 100포기를 이용해 김장을 담근 뒤 '즐거운 집' 식구들에게 보내줬다.

김씨는 "개인적으로 가족들과 공동 주말농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초등 학생들과 함께 해보는 것도 좋은 교육이 될 거라는 생각에 시도했다"며 "복지시설은 광주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 의해 소개를 받았다"고 말했다. 참가 학생들의 반응은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염다빈(13·주월초 6년)양은 "배추



자신들이 직접 일군 배추와 무를 장애인 복지시설 '즐거운 집'에 전달한 광주 주월초등학교 학생들이 장애인들과 활짝 웃고 있다.

(주월초 제공)

와 무가 쑥쑥 자라나는 것을 직접 볼 수 있어 즐거웠다"며 "우리 손으로 끈은 채소로 장애인을 도왔다고 생각하니 뿌듯하고 자랑스러웠다"고 말했다.

김씨는 "내년에는 주월초를 비롯한

화정초, 백일초, 화정중 등 인근 학교들과 연합해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해 볼 생각"이라며 "상주, 고추, 고구마 등 계절별로 다양한 채소를 심어 복지 기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이상수 노동부장관**계간문예 수필문학상**

이상수 노동부장관이 25일 문예지 '계간문예'가 주관하는 제2회 계간문예 수필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수상작은 '계간문예' 2006년 여름호에 발표한 수필 '분재의 절사를 풀어나'다.

이 장관은 "돌이켜보면 글을 쓰는 순간이 가장 순수하고 진지했던 때였던 것 같다"며 "그 때의 순수한 정열을 되살려 남은 인생을 살아가고 싶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 장관은 그간 '사람값과 사람대접'(1997), '나는 충무경찰서 청탁가수'(2002), '충무경찰서 초대가수'(2005) 등의 수필집을 펴낸 바 있다.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무료로 실어 드립니다. People@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70-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62) 2200-634 FAX (062) 222-4938, 222-4918

화촉

▲김태례씨 장남 명용하(글로벌 자동차서비스 대표)씨 김한복씨 장녀 문희안=29일(토) 오후 1시 메리어트웨딩홀 1층 사파이어홀.

▲이성자씨 아들 정승원군 오권수(부동산업(부동장부)회장)씨 딸 영아=29일(토) 오후 1시 서울시 종로 밀레니엄 서울 힐튼 그랜드볼룸.

▲윤종암(광주시청)씨 장남 청민(인천시 공무원)군 최경운(남양산업개발 대표)씨 장녀 선화(부천종교사)씨=30일(일) 낮 12시 메리어트웨딩홀 2층 컨벤션홀.

▲이철현(대한주택공사 광주전남 지역본부 본부장)씨 장남 세원군 정기철씨 장녀 현주양=30일(일) 오후 2시 서울시 교원공제회관 15층.

▲유영숙씨 장남 박병희군 김용

옥(보성군 재향군인회장)씨 장녀 혜련(호남매일 정치부 차장)씨=29일(토) 낮 12시 10분 이화웨딩캐슬 2층 축복실.

알림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인권상담=월~금 오전 9시~오후 5시, 국번 없이 1331.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 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무료 금연교육 및 금연실천자 관리 실시=직장인 대상으로 흡연의 폐해·금연 필요성 및 방법 강연, 금연보조제 및 상담. 문의 062-1366, 434-1366 www.gene-korea.com

▲광주생명의 전화 무료 상담=24시 전화 상담 전국 공통 1588-9191, 광주 223-9191. 멤버십 상담은 월~금요일, 오전 9시~오후 5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들에

게 상담을 통한 정서적 지지와 격려 등.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법률상담=월~금 오전 9시~오후 6시. 국번없이 132. 무료 법률 상담 및 법률구조, 면접 상담은 광주지방검찰청 민원실 2층.

▲홀트이동복지회 광주아동상담소 무료 상담=국내 입양 상담. 미혼모 상담 및 시설 입소 안내. 227-8877

▲비둘기 가정상담소 무료 상담=인터넷 및 전화 상담. 방문 상담도 가능. 미혼모 시설 입소 안내. 227-8877

▲평생학습센터 무료 상담=24시 전화 상담 전국 공통 1588-9191. 멤버십 상담은 월~금요일, 오전 9시~오후 5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들에

▲대광 해남군 산이면 향우회(회장 이영배) 총회 및 송년의 밤=27일(목) 오후 6시30분 꿈의궁전 웨딩홀, 011-631-5109**모집**

▲우리문화연구회 소리노리 풍물놀이 및 장구초·민요, 한총·회원 모집=매주 월·수·금 오전 10시~11시, 화·금 오후 7시~8시30분.

초·중·고 대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염주체육관 11호 장구교실, 371-4242

▲시랑모아 가족복지회 회원 모집=종이공예·독서모임·성교육 스터디 강사, 생활체육 배드민턴 회원 모집. 385-0422

▲유급지원병(전문병) 모집=중증 이상 학력으로 해당 특기 자격·면허 또는 전공학과 이수자. 모집 인원 1천명. 의무복무기간은 일반병과 동일, 연장복무기간은 하사로 영내 거주하며 이 기간 중 월 120만원·지원장려수당 월 60만원 지급. 문의 광주광역시 병무청 230-2244

▲박자순씨 별세 정선만(전 육군 공병감)·옹화(전 언론인)·상화(조선대 기계과 교수)씨 모친상 이정연

4246~9

▲횡성 심자수 무료 수강생 모집=쿠션·액자·지갑·열쇠고리·휴대전화 줄 제작 등 무료 교육. 문의 512-4000, 528-8500

부음

▲김길수(김길수세무사 대표)씨 별세 학수(주)메디슨 감사·전 신용보증기금 이사·학봉(제일모직 광주 빙풀대리점 대표)·학삼(건설업)씨 부친상 김선덕(전 마사회 홍보실장)·고영진(개인사업)씨 빙부상=발인 26일(수) 무안 제일병원 장례식장 101호, 061-454-9342

▲조경완씨 별세 문식(사업)·일성(사업)씨 부친상 조창희(문화관 광부 국장)·신옥성(부산신안열처리 대표)·안길삼(동작구청)씨 빙부상=발인 26일(수) 진도 전남병원 장례식장 3분향소, 061-544-2007

▲김철현(김철현)씨 모친상 박진철(전 일봉 대표)씨 모친상 박진철(전 한국수출입은행 부장)·장경태(동광제약 부사장)·오기석(전 남대 교수)씨 빙모상=발인 27일(목) 무등장례식장 1분향소, 515-4448